

산란계병아리 사육수수가 늘어나면 계란 생산량도 증가한다

동향

2014년 산란업계는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였다. 올해초 모두가 우려하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산란계 전체 사육수수의 13%이상이 매몰되었고, 산란중계장의 누전사고 등으로 산란계병아리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산란계병아리는 물론 산란중추까지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또한 난가 인상에 대한 기대와 축사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등으로 산란계병아리 입식열풍이 불면서 내년 사상초유의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올초 AI 발생으로 농가의 방역의식이 높아지면서 큰 질병이 발생되지 않아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산란계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병의 발생으로 농가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작년에 비해 올해 계란가격이 상승하자 마치 물가상승의 주범이 계란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 예상치 못한 여론의 못매로 출혈경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여 보는 이로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하였지만 산란계농장에서는 오늘도 묵묵히 국민의 먹을거리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땀방울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료분석

지난 11월 산란중계 입식마리수는 76,400수로 전월(22,880수)대비 233.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45,760수)대비 66.9% 증가하였다.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3,754천수로 전월(3,700천수)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3,128천수)대비 20% 증가하였다. 10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33,433톤으로 전월(31,668톤)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31,209톤)대비 7.1% 증가하였다. 산란사료는 188,901톤으로 전월(174,556톤)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178,446톤)대비 5.9% 증가하였다. 10월 산란중계사료는 4,870톤으로 전월(5,138톤)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5,439톤)대비 10.5% 감소하였다. 한편 10월 산란성계육은 2,239천수로 전월(2,879천수)대비 22.2%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2,002천수)대비 11.8% 증가하였다. 올해 3/4분기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총마리수는 6,526만수로 전분기(6,285만수)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사육수수는 4,881만수로 전분기(4,734만수)대비 3.1% 증가하였으며, 3~6개월 병아리 사육수수는 760만수로 전분기(678만수)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3개월미만 사육수수는 873만수로 전분기(885만수)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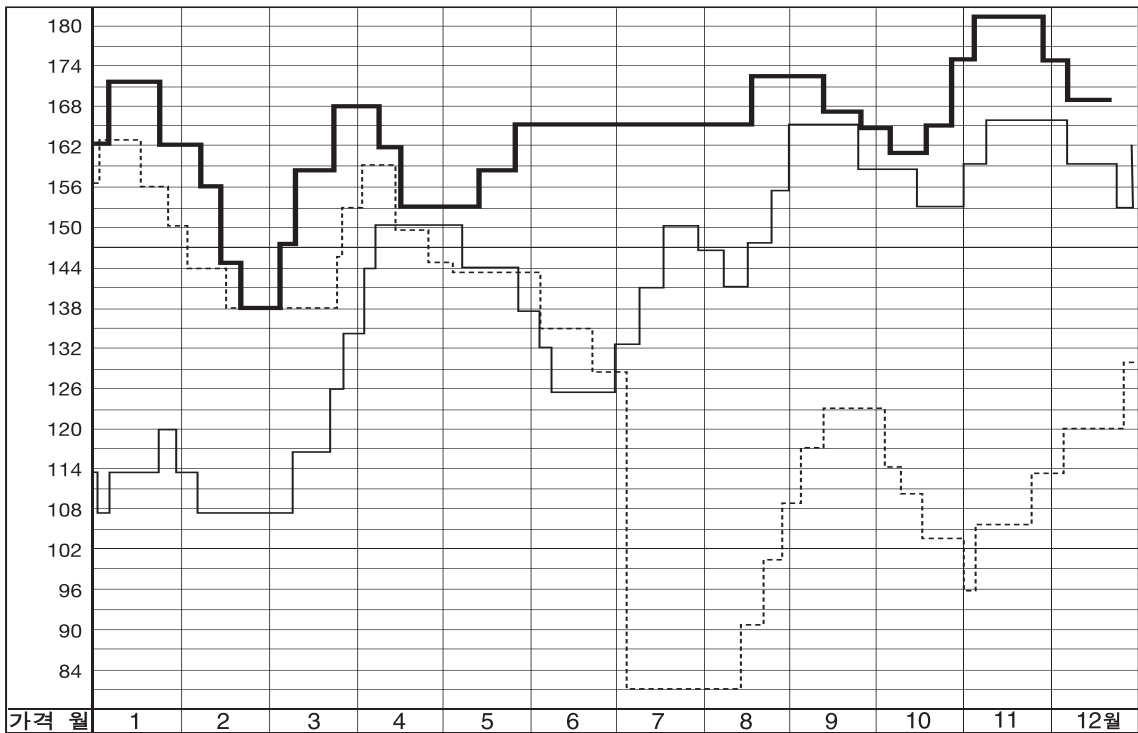
전망

난가는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할인행사와 연말 수요 등 난가인상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약세로 돌아선 것은 과잉생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AI와 FMD에 대한 보도는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산란계병아리 판매업자가 빛바랜 전망을 제시하며 병아리 입식을 권유하고 있으며 아직도 병아리가 없이 산란중계 부화장의 예약물량이 줄지 않고 상황이다. 비대해진 산란계 사육수수로 인하여 또다시 사상초유의 산란계 입식사태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란계농장의 위기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달의 계란전망

이상목 차장
경영정책부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2-- 2013- 2014-

▶ 병아리 · 사료 · 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3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64,000	2,635	25.4	176.7	1,172	1,570
4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48,000	4,194	27.8	176.5	1,321	1,596
5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54,080	3,752	29.7	175.6	1,450	1,582
6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48,500	3,273	28.7	163.8	1,450	1,650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52,500	4,258	31.4	172.0	1,450	1,650
8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45,000	3,418	29.9	174.4	1,450	1,679
9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44,960	3,460	31.7	174.6	1,450	1,691
10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22,880	3,700	33.4	188.9	1,406	1,647
11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76,400	3,754	30.3	182.7	1,450	1,804
12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계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